

CAMP 아시아빈곤 선교센터 NEWSLETTER



2023년 겨울호
Vol. 50



이철용 목사의 자립선교 이야기

선교현장에서 탄소중립 농업을 실천하는 캠프

이철용 목사 (사단법인 캠프 대표)



아시아빈곤선교센터 사단법인 캠프는 필리핀의 도시빈민 이주민 지역에서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교육,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 등 삶과 연관된 전분야의 변화를 위해 사역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필리핀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기도하던 와중에 한국의 보나양계 기술을 도입해 필리핀에서 성공적으로 자립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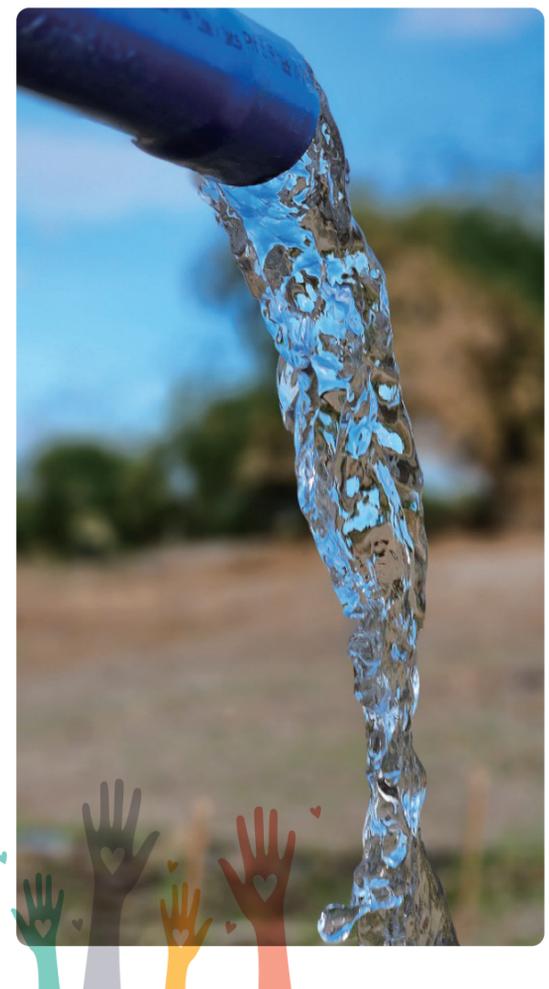
신 은혜로 자연양계는 확장되었고 이주민지역에서는 공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협력기관인 필리핀연합교회(UCCP) 마닐라북노회의 추천으로 딸락에 농지를 마련하고 자연양계와 함께 농업활동을 진행하고 이러한 사역에 지역교회가 참여하고 교인들의 소득향상을 통해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선교현장에서
탄소중립 농업을
실천하는 캠프
”

최근들어 농촌환경은 너무 절망적입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비가 제때 내리지 않고 가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역지 다바오의 두리안 생산농가들은 꽃이 피는 시기는 물론이고 폭우로 인해 과실들이 익기도 전에 썩어가는 등 질병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사태 이후 기름값 급등은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주고, 자연스럽게 비료가격 인상으로 결국 농업을 포기하는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캠프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딸락 자립선교센터에 캠프지속가능발전센터를 설립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캠프도 딸락에

서 친환경농업을 통해 매탄과 아산화질소 배출을 억제하고, 물공급과 가공시설에 필요한 전기를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해결하는 등 탄소중립 농업을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뉴스레터에서는 캠프가 시도하고 있는 탄소중립 농업 사례를 한국교회와 공유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캠프 자립선교와 동역하는 북성교회

조영규 담임목사



1 북성교회를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경춘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춘천 못 미쳐 나오는 지역이 가평입니다. 북성교회는 가평군 북면 활약산로 44번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성교회는 1961년 1월에 설립되어 2023년 설립 62주년이 된 오랜 역사를 지닌 장로교 통합측 교회입니다. 조영규 담임목사가 위임목사로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장년 80-90여명, 교회학교 어린이 중고등부 각 10여명 정도 모이는 전형적인 시골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세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북성교회의 5대 실천목표

- ①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는 교회
- ② 기도하여 응답받는 교회
- ③ 전도하여 부흥하는 교회
- ④ 말씀으로 바로 서가는 교회
- ⑤ 성숙한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2 북성교회의 지역선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가평은 마을 전체가 산신제를 드리고 있고, 한국의 이단종교들인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에덴성회의 본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이 농촌지역이다 보니, 농촌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령화 사회가 되어 교인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북성교회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행사, 개인 가정의 경조사, 위급한 재난 발생시 사랑의 봉사활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늘 기도하고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역주민자치위원회 회원으로 교회적 소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 아시아빈곤선교센터 캠프와는 어떤 인연으로 맺어졌나요?

이철용 대표와는 오랜 친분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소식을 듣다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의 관건은 선교사의 선교적 사명과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철용 목사님은 가식없이 정직하게 주어진 소임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는 정말 듬직한 선교일꾼입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 자신의 특성과 은사를 잘살려 자립 주도형 선교사역의 꿈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소식을 듣고 북성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4 자립선교에 대한 응원의 말씀!

선교의 목적은 자립입니다. 성숙한 인생의 목표가 자립인 것과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특징도 네비우스 자립선교 사역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직 한국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전, 한국교회의 선비사상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현재의 한국교회를 만들었고 자립선교 정신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 행해지는 자립선교는 아직 쉽지 않지만,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기반을 갖추게 된다면 사역의 동반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립선교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한 선교정책입니다.

5 뉴스레터 독자들에게 한 말씀!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뉴스레터를 읽고 있으면 생동감이 넘쳐 납니다. 보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캠프의 필리핀 사역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삶의 의욕과 도전정신을 갖게 만듭니다. 힘찬 박수로 선교현장에 동참하십시오.



1 Turnaround people and Turnaround place

✎ 하태선 교수 (지도교수)

아신대학교 해외봉사단이 '캠프'를 방문하게 된 것은 2017년 여름방학 봉사를 시작으로 코로나 이전까지 2018년 겨울방학, 2019년 겨울방학까지 세 번에 걸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2023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12명의 해외봉사단이 구성되어 '캠프'에 방문하게 되었다.

'캠프'를 계속해서 방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캠프'가 지향하는 방향과 진심이 담긴 현장 때문이었다. 현지인들의 욕구에 맞춰 그들이 주도하여 빈곤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협력하는 '캠프'의 정신은 사회복지실천에서 말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주의, 당사자주의라는 가치가 반영된 것이었다. '캠프'는 현지인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 빈곤에서 벗어나는 turnaround people을 만들었으며, 타워빌 현장을 이양하는 과정을 보면서 외지인인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turnaround place를 만드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년 학생들을 모집하여 봉사단을 꾸리고 해외로 인솔하여 나간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위험을 감수한 일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해외 현장에 대한 눈을 뜨고, '캠프'와 같은 모범적인 현장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꿈꾼다면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현장을 보여주고 체험하고 스스로 느끼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더욱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새로운 경험과 교훈을 얻게 한 해외 봉사활동

✎ 이성재 (상담복지학부 1학년)

도착 첫날에는 딸락에 있는 캠프 지속가능발전 센터를 방문해 강의를 들은 후 농업 관련 봉사 활동으로 태양열을 이용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패널을 설치하고, 옥수수 농장의 제반 시설보수와 더불어 농작물에 급수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소수민족(아이따) 마을로 이동해 마뭇 주민들을 도와 버섯 생산시설 보수 및 지원 활동을 하였다. 셋째 날 마을 유치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략 50여 명 정도 참석 예상 이었는데, 실제 2배인 100여 명이 참석해서 유치원은 포화상태였다. 혹시나 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유치원 교사와 진행팀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친해지고 사랑을 나누며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6박 7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이었지만 대학에 들어와 갖게 된 첫 해외 봉사 활동은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며 좁은 안목과 식견에 갇혀 있던 내게 새로운 경험과 교훈을 얻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와 연관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것에 대해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적 지식을 구체적인 실천적 활동을 통해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소화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라고 고백한다.



3 하루빨리 현장에 와봐야겠다는 마음

✎ 이하은 (국제개발협력학부 2학년)

캠프와 함께한 이번 사역과 경험은 여러 면에서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고, 오 길 잘했다는 생각이다. 캠프라는 NGO는 필리핀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이 원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과 사역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을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농업을 비롯해 교육과 보건, 환경, 에너지,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애쓰는 캠프 관계자들과 봉사단원을 보고 이들과 소통하며 참 귀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 또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얻기도 했다.

가장 큰 깨달음은 '현장에 하루빨리 와봐야겠다'는 마음이다. "해봤어?"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 남는 건 현장 경험이다. 봉사단 활동을 통해 현장에 나와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배우고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커졌고 더욱 뜨거워졌다. 나의 꿈과 비전이 더욱 선명해지는 시간이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 나가야 할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되어 정말 소중하고 유익했다.

2023년 캠프 필리핀 사역현장을 함께한 사람들

코로나가 끝난 2023년부터 한국교회의 해외 비전트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캠프 현장 역시 2023년 1월부터 한국교회와 한국대학교 등 비전트립과 해외봉사단팀을 맞이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5개 (7개 교회, 4개 대학교, 1개 중학교, 3개 단체)에서 캠프 사역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프의 필리핀 사역현장을 둘러보며, 사회연대경제와 자립 선교에 대해 공부하며, 농업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땅을 일구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모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한 교회/기관/단체

	기간	기관, 교회	대상	지역
1	2023. 1	구하리교회	전교인	딸락, 마닐라
2		과천교회	청년부	딸락, 타워빌, 마닐라
3		충남대학교 사회공헌센터	대학생	딸락, 타워빌, 마닐라
4	2023. 2	한기범 농구교실	청년	딸락
5	2023. 8	한기범 농구교실	청년	딸락
6	2023. 9	마닐라 새생명교회	중고등학생	딸락
7	2023. 11	영광중학교	중학생	딸락
8	2023. 12	아신대학교	대학생	딸락
9	2024. 1	오산양일교회	중고등학생	딸락
10		과천교회	청년부	딸락
11		광주제일교회	중고등학생	딸락
12		한신대학교 사회혁신대학원	대학원생	마닐라, 민다나오
13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대학원생	마닐라, 민다나오
14	2024. 2	십자수공동체교회	전교인	딸락
15		한기범농구교실	청년	딸락



◦ 캠프 필리핀 사역현장



마닐라 사역지

사회적기업 네이처링크가 운영하는 친환경매장을 방문하여 사회연대경제를 경험



불라칸 사역지

사회적기업 익팅봉제센터와 사회적기업 네이처링크가 운영하는 식품가공현장과 친환경 양계장 체험 활동



딸락 사역지

딸락 지속가능발전센터와 올가능장을 통한 농업활동, 태양광 설치, 인근학교 사역, 소수민족 교회자립 지원활동, 지역농구시합 등



민다나오 사역지

두리안 협동조합을 인큐베이팅하는 4개 바랑가이 방문, 민다나오 소재 대학교와 기관 방문

후원계좌 : KEB 하나은행 415-890009-19504 (사단법인 캠프)



캠프 후원하기
QR 바로가기

🇰🇷 캠프 본부 (한국)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9길 28-1 (당산동6가) 3층
Tel : 02-3147-0309, 0310 Fax : 02-3147-0308

🇵🇭 캠프 아시아 (필리핀)

마닐라 : ORGA store, G/F, 115 Gamboa, Legazpi Village, Makati,
1229 Kalakhang Maynila
Tel : +63-2-8354-2858, +63-905-307-0911

불라칸 : Lot A-2, Upper Quarry, Barangay Minuyan proper,
San Jose Del Monte City, Bulacan

딸락 : Sapang Kuran, Barangay Moriones, San Jose, Tarlac

민다나오 : Lagudas Farm, Purok 3, Brgy. Sirib, Calinan Dist., Davao City

🌐 홈페이지 : www.icamp.asia

✉ 메일 : campint@icamp.asia (필리핀) camp-ph@icamp.asia

📝 블로그 : blog.naver.com/camplove11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amp.asia

📷 인스타그램 : @camp_int

📺 유튜브 채널 : 유튜브 검색창 '사단법인 캠프' 검색

💬 카카오톡 채널 : 카톡 검색창 '사단법인 캠프' 검색

🗨 캠프 게더타운 : https://url.kr/9yca8



· 사단법인 캠프는 외교부에 등록된 국제개발협력 NGO이며,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회원입니다.